

4. 탕 정 면

[43] 능구리 바위

먼 옛날 가난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남편은 괴이한 병에 걸려 시달리고 있었다. 가난해서 좋은 약을 쓰지 못하고 좋은 풀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써보았으나 병은 더 악화되어 갔다.

하루는 스님이 시주를 하라고 목탁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시주를 하니 스님은 돌아가려다가 집 주위를 보더니 검은 먹구름이 있다는니 그런 소리를 했다. 그 부인은 스님한테 자기 남편이 나쁜 병에 걸렸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그 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안타깝게 물어 보았다. 그 스님은 백일 기도를 하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 부인은 정성껏 백일 동안 기도를 하며 지성을 올렸다.

백일째 되는 날 부인은 깜박 잠이 더 있는데 꿈속에서 수영이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 양지말과 음지말(금간리) 사이에 가 보낸 바위 틈에 능구렁이라고 하는 풀을 뜯어다 끓여 먹으면 낫을거라고 하여니 그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깜박 잠에서 깨어 주위를 보니 아무도 없었다.

그 부인은 곧장 그 바위로 향하여 달려가서 보니 그 할아버지의 말이 사실이었다. 능구렁이가 풀로 **qs**한 것이다. 풀을 뜯어 끓여 먹으니 그 남편은 차차 쾌차해 나갔다. 그 남편은 씻은 듯이 다 나은 후에 부인한테 물어 보았다. 그 부인은 사실대로 남편한테 다 알려 주었다. 남편은 그랬었냐고 하면서 그 바위에 가서 매일 지성을 올렸다 한다.

그 후로 병이 있는 사람이라며 능구리 바위 앞에 노구메를 지어 놓으면 비록 치료 아니더라도 바위 틈에서 능구렁이가 나왔다면 능구리 바위라 한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44] 명암바위

옛날 탕정면 명암리 4구 앞산에 큰 바위가 있었다 한다. 명암은 흰색의 바위로써 멀리서 보면 바위의 모양이 흰옷 입은 상주가 구부려 곡을 하는 모습이었고 때때로 상주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그 울음 소리는 3일 밤낮을 두고 계속 들렸다 한다. 이상한 일은 그 동네에서는 전혀 곡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인근 부락에서는 곡소리가 분명하게 흰 바위쪽에서 들렸다고 한다. 이윽고 그 곡소리가 그치면 그 동네에 불길한 일이 꼭 일어나곤 했다.

그후 동네 사람들 모두 모여 의논한 결과 그 흰바위를 깨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그 흰바위를 깨뜨리려고 해도 그 바위를 깨뜨릴 수 없었다 한다. 결국 부락인을 총동원하여 머리쪽을 깨뜨리니 속에서 빨간 피가 나왔다 한다.

그 후로는 불길한 사건도 울음소리도 없어졌다고 전하며 지금도 불화는 없어지고 행복이 찾아온 것이다.

[45] 비 누 고 개

탕정면 용두리 이곳은 속칭 용머릴라고 불린다. 그 동네에 대한 전설이 동네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진다. 용두리로 올라면 그곳에 고개가 하나 있는데 그곳은용의 비늘이 있다고 해서 비늘고개라 불리다가 변하여 비누고개라 한다.

그 마을 뒤에는 산이 있고 산에는 수천년 묵은 구렁이가 살고 있었다. 이 구렁이는 용이 될려고 묵고 있는데 조화를 부려 날이 가물게도 할 수 있고 비를 **soflo**게도 할 수 있는 묘법을 가지고 있어서 마을 사람들은 산에 당을 짓고 구렁이에게 제사까지 지내고 있었다. 제사를 잘 지내야 풍년도 들고 산에 나무를 하거 가서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1년에 한번 있는 큰 제사때의 구렁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마을의 처녀를 한 사람씩 당에 데려다 바쳐야 했다.

이러한 풍습은 한국의 샤머니즘에서 유래된 공물로 숫처녀를 바치는 방식이었다. 심청전의 나이 어린 심청이가 임당수에 몸을 던지는 것도 바다의 귀신에게 모두 제물로 바치는 희생물인데 이는 모두 천지 신명에게 천지가 평안하기를 비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처녀들이 매년 희생되어 가야만 했다.

그 마을에는 돌이 굉장이 좋아하는 남녀가 있어살. 그런데 그 여자가 구렁이에게 바치는 차례가 되었다. 남자는 자기가 구해 줄테니 염려말라고 하고 여자는 누물을 흘리며 "저 혼자 죽으면 그뿐이에요 걱정마시고 집에 계세요"하면서 울먹거렸다. 이윽고 저녁이 되었다. 제사를 지내려고 농악을 하고 산을 차려 놓고 제사를 지냈다. 모두들 돌아가고 캄캄한 저녁이 되었다. 처녀는 너무도 무서웠다. 구렁이가 금방 올 것이라는생각에 너무 떨려 질식할 것 같았다. 구렁이가 나타났다. 처녀는 구렁이를 보자마자 기절을 했다. 한편 남자는 처녀를 찾아 산으로 올라왔다. 굴속에서는 구렁이가 엉금엉금 기어 처녀에게로 다가왔다. 그때 남자가 들어왔다. 무서움을 무릅쓰고 죽기를 각오한 그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 다만 처녀를 구해야겠다는생각뿐이었다.

구렁이가 총각에게 달려 들었다. 총각은 대항해 싸웠으나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다. 칼로 찌르고 때려도 끄떡도 하지 않았다. 총각은 오직 처녀를 구해야 겠다는 일념으로 싸우면서 신령님께 빌었다. " 제발 도와 주셔서, 신령님!" 그때였다. 문득 하얀 연기가 일더니 신령님이 나타나 " 네 요망한 놈, 너는 어찌하여 사람을 괴롭히느냐"하면서 지팡이로 머리를 툭 치니 구렁이가 용으로 변하면서 하늘로 올라갔다. 총각도 기운이 빠져 쓰러진 후 아침에 깨어보니 구렁이는 간데없이 바위에 비늘 만이 남아 있었다 한다. 총각은 기절한 처녀를 데리고 마을로 데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에서 돌봐준 사람이라면서 돌을 결혼시켜 행복하게 살았다.

지금은 고개가 되어 버린 그 산에 여기 저기 흩어진 돌비늘이 총각과 싸울 때 떨어진 용의 비늘이라고 한다.

이 비늘고개가 비누고개로 변하여 불리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그 숭고한 정신을 이 비늘이 남아 있고 고개가 남아 있는 한 오래오래 사람들의 가슴속에 전해 질 것이다.

[46] 수 청 리

우리 동네는 이조 말엽에는 10여호의 작은 부락이었다. 우리 마을에서 용두리 산의 방향을 보면 용두리 산의 숲은 우거지고 푸르켜 날짐승이며 공기도 맑고 물도 맑으며 마을 사람들의 인심도 푸르고 깨끗하여 마을 이름을 수청리라 하였다 한다. 또 지혜이 구렁이와 같아 구렁이라고도 하며 또 하나의 이름은 "구렁리"

우리 마을은 약 2000여년전 9인의 성현이 살았다 한다. 성현들은 한결같이 날이 새자마자 정자로 나와 시을 읊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로 이야기꽃을피우다가 날이 저물면 헤어지자고 했다 한다. 그러던 어느날 그날도 변함없이 정자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서 9인 성인들의 몸이 붕붕 뜨면서 모두 신선이 되어 승천하였다 하여 구렁리하고 부른다 한다. 그들이 왜 하늘로 승천했을까 아직도 의문점이 풀리지 않는다.

[47] 용 두 리

우리 동네 위쪽에 용처럼 생긴 산이 있다. 이산 밑에는 작은 마을이 있다. 이곳을 용머리라고 한다. 이곳에는 마남씨만 사는 씨족사회였다. 동네사람들은 남을 도와주며 아주 재미있게 살고 있었다. 어느날 왜놈들이 이곳에 모여 들었다. 왜놈들은 이곳을 어떻게 해야 화목한 동네에 풍지 풍파가 일어나게 할 것인가 궁리를 하였다. 이렇게 하여 용의 목을 자르게 되었다. 용의 목을 자르면 이 동네에는 화목이 깨어지고 인재가 태어나지 못할 것이다. 생각을 하여 용의 머리를 자르기로 한 것이다. 용의 머리를 자를 때에 동네 사람들이 많이 울었다고한다. 용의 목부분에는강이 나게 되었다. 이길은 지금 현충사에서 우리 동네로 들어오는 곳에 고개로 되어 있다. 이곳은 용의 목부분이고 이곳은 비누 고개라 한다. 용의 목을 자를 때 피가 많이 흘렸는데 피가 흐르던 곳을 지금은 한내라 부르고 있다.

용머리를 자른데에서도 왜농들의 잔인성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 피가 한내를 이루었다함은 그곳에 흐르는 것이 냇물이 아니라 핏물이며 한이 흐르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된다.

서글픈 전설에 두 주먹이 쥐어진다.

[48] 정 자 나무

우리 마을 (아산군 탕정면 구령리 2구)엔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 나무가지가 부러지고 속이 텅빈 오랜 고목, 어른들께서는 이 고목이 천하게 여기지 않는다. 내가 보기엔 보잘 것 없는 나무를.... 하지만 어른들이 왜 이 나무를 천하게 여기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어느날 옛 어른들은 마을의 쓸모 없는 나무를 베어 버리기로 했다. 어른들은 마을의 나무를 한참 베고 있으려니 나무가 저절로 반 동강이 나며 새파란 피가 흘러 내렸다. 놀라 멀리 떨어져 있던 어른들은 괴이히 여겨 가까이 가보니 천년쯤 묵은 구렁이가 몸둥이 갈라진 채 죽어 있었다. 그 후로 그 울창한 나무는 서서히 말라 갔으며 마을행사때엔 꼭 비가 내렸다. 그리고 구렁이가 죽었던 날이 되면 구렁이가 나무를 휘감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안 되겠다 싶었던 동네 어른들은 그 나무에 큰 제사를 지냈다. 매년 제사 지낼 것을 약속한 채 그 후로 구렁이의 모습도 행사때마다 오던 비도 없어졌으며 나무도 다시 울창한 나무가 되었다 한다. 지금의 그 나무는 한 쪽의 나뭇가지가 부러진 채 있다. 여름엔 할아버지의 휴식처럼 나무그늘을만들어 주기도 한다.

먹구름이 낀 오늘 새삼스럽게 쳐다보는 나무, 어쩐지 구렁이 모습이 보이는 것만 같아 몸이 으쓱해진다.

[49] 호 산

탕정면 호산리 우리 동네를 호산이라 부른다. 범호자에 뫼산자를 쓴다.

우리 마을은 옛날에 호랑이가 많았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행차를 하는 것을 보로 갔는데 점장이가 그에게 하는 말이 너는 호랑이한테 잡혀 죽게 될 팔자라고 했다. 그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지 않을 수 있느냐고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점장이 말이 호랑이를 피해 다니라고 했다. 그 젊은이는 절에 가서 날마다 부처님께 빌며서 숨어 살았다. 하루는 노승이 방으로 들어오더니 웃웃을 베풀어라고 하며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으라고 했다.

젊은이는 그 말에 놀라 싫다고 몸부림 치며 밖으로 뛰어 나갔는데 그 문앞에는 호랑이가 으르렁대고 잡아 먹으려는 듯이 서 있었다. 이리저리 도망가며 피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잡혀 먹었다. 호랑이가 많아서 마을로 내려올 때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푸르름만이 깃들여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다. 이제는 호산이 아니라 청산이나 미산이라고나 할까?

[50] 호랑이 바위

아산군 탕정면에는 호산이라는 마을이 있다. 지금은 이곳에 사람도 많이 살고 버스도 들어오고 해서 큰 마을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깊은 산속이었다. 이 마을 길옆 산속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는데 어느날 그곳에서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들을 수없이 잡아 먹었다 한다. 그래서 이곳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일찍부터 집에 돌아왔고 길을 다닐적엔 때를 지어 등불을 밝혀 들고서야 이곳을 지나쳐 다니곤 했고 혼자서는 그 길을 가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그 바위앞에 가기극꺾 꺼려하고 멀리서 지나칠 때에도 한번씩 돌아보고 지나가는데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은 이 바위를 범바위라 이름했으며 호랑이가 나온다 하여 이 마을을 범미 또는 호산이라 했다.

신이며, 이제는 천하를 호령할 한국의 호랑이가 이곳 호산에서 나오게 하소서